

한중옥의 '풍화혈'. 제주갤러리 제공

반세기 크레파스와 인연 한중옥의 '백만 번의 칼질' 서울 제주갤러리 선정 전시

종이와 크레파스, 칼이 그의 주된 작업 재료다. 그는 검은 종이 위에 크레파스로 다양한 색채를 두껍게 쌓아 올린 뒤 날카로운 칼끝과 칼날로 표면을 긁고 벗겨내며 형상을 드러낸다. 물감을 더하거나 선을 그어 이미지를 완성하는 일반적인 회화 작업이 아니라 쌓아진 색층을 깎아내고 지워내며 이미지를 표현한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한 작품이 완성된다.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 자리한 제주갤러리에서 열리는 제주 한중옥 개인전 '백만 번의 칼질'이다. 2026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전시로 '크레파스와의 인연, 그 50년'이라는 부제 아래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선보여 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조명한다.

출품작들은 제주 바닷가의 돌을 주요 소재로 삼아 자연이 빚어낸 표면의 흔적과 시간의 층위를 화면 위에 풀어낸다. 화면을 가득 채운 돌의 표면은 육중한 산의 모습으로, 때로는 추상적인 회화의 장면으로 다가온다.

박영택 평론가는 "돌의 피부에 새겨진 수많은 선과 틈, 점과 주름은 자연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회화적 요소가 된다"며 "관객은 익숙한 돌에서 낯설고도 환상적인 형상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 오프닝은 4일 오후 4시30분. 진선희기자

제주 바다와 함께한 세 여성의 교감

'2026 물의 노래…' 10~17일
세대 뛰어넘은 해녀·기획자
수중 사진과 아트 필름 영상
첫날엔 음악·몸짓 담은 공연

세대와 삶의 방식이 다른 세 여성이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의 숨결이 닿는 순간을 붙잡은 다원예술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서귀포시 안덕면 끌로드아트홀에서 진행하는 '2026 물의 노래: 교감(交感)'이다.

예술단체 '프로젝트 더파란'이 주최·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시와 공연으로 구성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2리 베테랑 해녀 고순례, 9년 차 청년 해녀 정희선, 제주 이주민 기획자이자 퍼포머인 홍민아가 참여해 제주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풀어낸다.

전시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제주 바닷속 생태와 인물들의 내면을 포착한 수중 예술 사진과 아트 필름 영상을 선보인다. 허천범, 용우순, 최혜영 작가가 수중 영상과 수중 사진 촬영을 맡았고 고충권 프리다이빙 강사가 수중 안전과 자문을 담당했다. 2025년 '경계의 유영' 사진을 포함 2년에 걸친 작업을 전시한다. 단순히 바다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세 여성이 바다라는 무중력의 공간 속에서 영혼의 연대를 나누는 과정을 담는다.

전시 첫날 오후 7시에는 오프닝 공연이 열린다.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비올리스트 왕한나, 첼리스트 이길제, 무용가 김병조, 바이올리니스트 김민희가 출연한다. 이들은 수중의 파동과 교감의 메시지를 음악과 몸짓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더파란' 대표로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홍민아 연출은 "제주 바다에서 느낀 자유로움과 교감의 순간들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시·공연은 사전 예약제.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의 낭' 사진전 제주영상동인이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제주의 낭'을 주제로 제49회 기획전을 펼친다. '낭'은 나무를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제주영상동인 회원들은 동네 어귀의 폭낭, 마을의 당과 그 중심에 있는 당산목 등 긴 세월 섬의 공동체와 함께 숨 쉬고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돌담과 마을 풍경, 그 안에 깃든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사진으로 기록했다. 박광희의 '우리 동네 명월리 폭낭'(사진) 등 15명의 사진가가 약 70점을 내건다.

서귀포예당·제주대학교 협력 오페라 제작·무대 실연 기회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와 협력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올린다. 이달 14일 오후 2시와 6시 대극장.

이 공연은 대학의 전문 교육 자원과 공공 공연장 인프라를 연계한 사업이다. 제주대 성악 전공 학생들에게 실제 공연 제작과 무대 실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학생들은 기획부터 연습, 무대 공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하며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 성악가로 성장하기 위한 실전 역량을 쌓았다.

제주대 박웅 교수가 총감독과 지휘를 맡았고 김민정 연출을 중심으로 전문 제작진이 참여했다. 성악 전공 학생들이 피가로, 수잔나, 알마비바 백작, 백작부인 등으로 등장한다.

관람료 무료. 공연 당일 선착순 입장하면 된다. 진선희기자

고전에서 근대까지 첼로 음악의 진화

문숙연 오는 6일 첼로 독주회
서사 담은 첼로 소나타 대표곡



제주 문숙연(사진) 첼로 독주회가 이달 6일 오후 7시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번 독주회에 달린 제목은 '디에볼루션(The Evolution)'. 시대별 첼로 소나타 대표작을 선곡해 고전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첼로 음악의 진화 과정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Op.69',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L.135',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2번 Op.58'. 첼로 소나타 장르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베토벤을 시작으로 단순한 선율 악기를 넘어 소리의 질감과 공간을 그리는 매체로 변모하는 드뷔시, 서정과 격정이 공존하며 노래하는 악기로서 첼로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멘델스존에 닿는다. 피아노는 조안나(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상임반주자). 관람료 무료.

문숙연은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제주에서 수준 높은 실내악 레퍼토리의 지속 가능한 향유 기반을 확장하고 첼리스트의 해석 역량을 바탕으로 동시대 관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제주언론학회 학술 세미나

제주도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언론학회는 이달 6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스타즈호텔 헤리티지 연회장에서 '관덕정, 제주를 기억하는 광장-장소성과 재현으로 본 도시기억'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관덕정을 제주 원도심의 역사와 기억, 생활 문화와 도시 변화가 축적된 장소로 바라보고 제주학과 언론학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덕정이 지닌 역사적 장소성과 시대에 따른 공간의 변화, 언론이 기록한 원도심의 모습 등을 살펴보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김태곤 제주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장('관덕정을 바라보는 관점: 제주 원도심의 역사 건축과 장소성'),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장('관덕정(觀德亭), 마음먹고 가는 곳에서 슬리퍼 신고 가는 곳으로')이 맡는다. 정용복 제주언론학회장은 "과거의 기억을 지키면서 오늘의 삶을 담아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덕정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학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제주학연구소는 이달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마당(지하 1층)에서 '제주 민속과 땅·흙'을 주제로 2026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땅과 신앙', '땅과 삶'으로 나눠 6개의 새로운 연구를 발표한다. 발표 주제는 ▷제주도 무속의 땅 관념-'하늘엔 문도령, 지알엔 자청비'(강정식) ▷제주도 민간신앙에서 드러나는 땅의 인식(김승연) ▷제주도 무속 의례 '멩감제' 고찰(류진옥) ▷'땅(土)' 관련된 제주 방언과 지명(오창명) ▷제주 풍수설화에 나타난 '땅의 서사화'(강경민) ▷집을 지음에 흙의 의미(양성필)다. 지난 8월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제주도 중화요리점 연구'(조양)는 신진 연구 보고로 더해진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https://buly.kr/884D2CI) 이용.

제주학연구소는 제주 지역 독립연구자들이 제주학 진흥의 뜻을 모아 1997년에 설립했다. 지금까지 학술지 '제주학' 발간, 제주학 세미나, 제주학 명사 특강, 제주학 기행 등을 이어 오고 있다.

진실·질서·화합

오늘의 바르게, 내일의 희망찬 대한민국!

2026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국민포장

서상수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자문위원

국무총리표창

임경주
제주시협의회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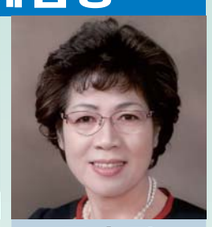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장관표창

강영환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부회장

임명호
제주시협의회 수석부회장

고성용
서귀포시 영천동위원회 위원장

바르게금장

오은정
서귀포시 동홍동장

고춘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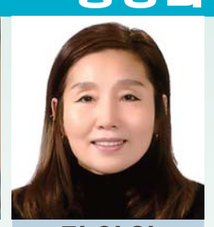
바르게금장

안영백
제주시 삼도1동위원회 자문위원

정철남
서귀포시협의회 회장

중앙회장표창

장연화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부회장

한효심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이사

강영임
제주시협의회 부회장

장군태
제주시 노형동위원회 위원장

유남희
서귀포시 서홍동위원회 위원장

이성배
서귀포시 정방동위원회 위원장

2026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정부포상 · 바르게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좌 중 언 외 임원일동